

[Special Feature] 갤러리바톤 ♥ 윤석원

MARKET

2020 / 04 / 01

이현

21 Galleries ♥ 21 Artists

2020년, 새로운 10년을 맞아 글로벌 아트마켓의 동향을 점검한다. 21세기 미술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이며, 마켓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기수는 누구인지, 그 생생한 지형도를 그려본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에 열리던 아트바젤 홍콩이 취소되어, Art가 국내외 메가 갤러리의 지상전을 펼친다. 2020년 아트바젤 홍콩 출전 엔트리 중, 세계 미술시장을 치열하게 공략 중인 갤러리 총 21곳을 3월호 특집에 초대했다. 그들이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은 '영 파워' 라인업을 공개한다. /



<Dry Plant-18030> 캔버스에 유채 100×100cm 2018

구상과 추상을 오가는

윤석원은 개인과 사회, 기억과 기록, 과거와 현재 등 얼핏 상반돼 보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를 화폭에 담는다. 일상의 사소한 사건부터 거대 담론까지, 작업 대상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주관적인 기억과 감정을 더해 풍부한 화면을 구축한다. 세밀한 묘사와 과감한 붓 터치가 공존하는 화면은 구상과 추상을 균형감 있게 오가며 빛과 어둠의 관계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자줏빛이

가미된 묵직한 색감으로 중층의 레이어를 덧입힌다. 오랜 기간 그려온 <마른 식물> 시리즈는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제작했다. 중력, 기후, 기압 등 다양한 에너지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식물에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작업.



<Gaze> 캔버스에 유채 90.9×72.7cm 2018

2차 세계대전 독일 잠수함에 관한 영화 <Das Boot>를 본 뒤로는 잠수함을 소재로 선택했다. 음파와 잠망경이라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심해 생활을 건디는 승조원의 모습에서 레지던시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삶을 떠올린다. 1983년생. 건국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및 동대학원 현대미술전공 졸업. 리서치앤아트갤러리(2018), 챔터투(2018), 갤러리바톤(2016), 우민아트센터(2014), 화봉갤러리(2013)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남도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2017), 단원미술제 단원미술상(2016), 중앙미술대전(2015), 화봉갤러리 신진작가상(2012) 등을 수상했다.



<Cloud> 캔버스에 유채 100×100cm 2020

2011년 개관한 갤러리바톤(<http://gallerybaton.com/>)은 현재 한남동에 자리 잡았다. 주목할 만한 해외 작가를 국내에 소개하고, 해외 메이저 아트페어에 참가하며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집중한다. 대안공간 챔터투와 레지던시 프로그램 챔터투야드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망한 국내 신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옹저베이션 텍에서 영상과 뉴미디어 작업을 소개한다.